

밤하늘 별·우주 관측 체험... 어린이 상상력 '쑥'

고흥우주천문과학관, 내달 2~5일 특별프로그램 운영 우주항공축제 연계... 누리호 모형 제작 체험 등 다채

고흥군이 별을 보며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26일 고흥군에 따르면 5월 2일부터 5일까지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을 정성 운영, 행성 관측과 체험행사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달 관측은 어렵지만, 밤하늘에서 두 번째로 밝은 금성과 세 번째로 밝은 목성이 서쪽 하늘에 위치해 행성 관측이 가능하다.

이 기간 천문과학관에서는 천체투영식

영상 시청과 천체관측 등 기본 프로그램 외에도 밤에 방문하는 어린이를 위한 특별 만들기 체험을 운영한다. 혜성, 별자리판, 삼구의 등 천문도구의 행성 모형, 누리호 모형, 새턴 로켓 모형 등 다양한 체험 재료를 선택해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특히 같은 기간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에서 고흥우주항공축제

가 열려 방문객은 지역 내에서 더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다.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은 우리나라 최대급의 800mm 반사 망원경과 돛 영상관을 보유하고 있어 우주의 신비를 생생하게 관측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2층 전시실에는 앙부일구 등 고전문 기기와 태양계체계, 옴옴 현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돼 있으며, 1943년 고흥

두원에 낙하한 운석 모형이 전시돼 있다. 3층 전망대에서는 다도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고흥우주천문과학관 관계자는 "만들기 체험까지 참여할 경우 체험 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낮에 방문하는 분들은 여유를 두고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며 "날씨에 따라 관측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기상 상황을 확인

하고, 연휴 기간에는 방문객 증가로 혼잡하거나 관측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문과학관은 5월 2일부터 5일까지 정상 운영하며, 5월 6일부터 7일까지

는 대체 휴무에 들어간다. 천문과학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관광정책실 (061-830-669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순천, '맞춤형 비료 공급' 영농 부담 완화

4899농가에 총 5억6800만원 투입 지속 생산기반 구축·농가 경영 안정

순천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역 농업의 중심인 벼농사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다지기 위해 벼 육묘용 상토와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벼농사는 순천시 농업의 근간이자 시민 먹거리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으로, 건실한 모 생산과 초기 생육 안정,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육묘용 상토와 맞춤형 비료의 적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시는 영농 초기에 필요한 핵심 농자재를 적기에 지원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은 4899농가, 3425ha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 5억6800만원은 순천시와 농협이 각각 70%, 30%를 분담해 농업인이 별도 부담 없이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은 5133농가, 3523ha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3억7500만원 규모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9억원 은 시비로 지원하고, 4억7500만원은 농가가 부담한다. 또한 논 타작물 재배 확대에 따라 두류 재배 116농가, 212ha에 대해서도 비료 37t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 전쟁 장기화에 따



른 국제 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불안,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비료를 비롯한 각종 농자재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농업인의 경영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시는 이러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벼농사에 필수적인 핵심 농자재를 적기에 공급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벼농사는 순천 농업의 중심이자 식량안보의 기반이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묘용 상토와 맞춤형 비료를 적기에 공급해 고품질 쌀 생산과 농가 경영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광양시는 최근 청사 창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여수·순천 10·19사건 민관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사진제공=광양시청

광양, 여수·순천 10·19사건 민관협 회의

교육·문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등 논의

광양시는 최근 청사 창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여수·순천 10·19사건 민관협의회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과 함께 2025년도 여수사건 관련 사업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사업 추진방향과 교육·문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민관협의회 위원 10명이 참석했으며, 여수사건 유족지 안내관 설치사업과 관련해 안내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고 2026년도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교육·문화 지원사업 공모에 접수된 사업을 심의해 5개 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다.

박선호 여수 10·19항쟁 전국유족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여수사건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과제"라며 "민관협의회가 중심이 돼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여수사건의 올바른 진상 규명을 위해 유족지 정비와 교육·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수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순천 10·19사건 민관협의회는 2022년에 구성돼 여수사건 관련 정책 추진과 의견 수렴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광양=김귀천 기자 kkkjw@gwangnam.co.kr

장흥 흥화표고 기획전 '성료' 지역 맞춤 전략소득작목 성과

장흥군은 최근 롯데아울렛 남악점에서 '흥화표고' 흥보·판매 기획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기획전은 지역 특화 브랜드인 '흥화표고'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자원 맞춤형 미래 전략소득작목 육성' 사업의 결실을 홍보하고, 소비자 교류를 통해 농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구축하는 등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갔다.

현장에는 장흥에서 자란 고품질 '흥화표고'를 직접 만나보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제품 판매 외에도 현장에서 진행된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가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흥화표고'만의 깊은 풍미와 쫄깃한 식감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기획전은 농업기술센터와 버섯산업 연구원이 함께 체계적인 사전 현장 밀착형 기술 지원으로 흥화표고의 균일한 품질과 경쟁력 향상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장흥 흥화표고가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직거래 장터 확대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장흥 농산물의 판로를 넓히고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영수 기자 jms050311@



곡성군이 최근 산불 예방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삼진강을 달리는 이색 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사진제공=곡성군청

곡성, '산불 예방 삼진강 러닝' 이색 홍보 눈길

12km 구간 달리며 메시지 전달

곡성군이 최근 산불 예방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삼진강을 달리는 이색 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번 '산불 예방 러닝 캠페인'은 곡성군 산림과 산림보호팀장이 평소 건강 관리를 위해 이어오던 개인 러닝에서 출발했다. '어차피 달리는 길에 의미를 더해보자'는 생각에서 직원 계산관에 참여 공지를 올렸고, 자연스럽게 산불 예방 홍보와 결합된 참여형 캠페인으로 발전하게 됐다.

곡성군 직원들은 삼진강 일원 약 12km 구간을 달리며 산불 예방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들고 강변을 따라 이동했다. 달리는 동안 만난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단지들을 건네며 산불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홍보활동도 함께 펼쳤다. 말 그대로 '달리며 홍보'였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의 현수막이나 마을 방송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군민과 관광객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달리며 전하는 메시지는 부담 없이 다가가면서도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일상과 접목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로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불을 근절할 수만 있다면 풀코스 42km도 매일 뛰고 싶은 마음이다"며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하지만 피해는 엄청나다. 눈·발두렁 소각 금지,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

여수, 어업인 경영안정 '수산정책보험' 지원

어선·어선원·어업인 3종 보험에 20억6000만원 투입

여수시는 지역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산정책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 20억6000만원 규모로 어선 재해보험과 어선원 재해보험, 어업 해당 보험료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수산정책보험은 어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어선·어선원·어업인 총 3종의 보험으로 구성된다.

총 보험료 중 국비가 우선 지원되며, 어업인 자부담분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가까운 수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어선 재해보험'은 어선을 대상으로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의 1급별 5~35%를 지원한다.

아울러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 보험료의 10~60%를 지원하며 전 어선이 의무 가입 대상이다. '어업인 안전보험'은 산재 및 어선원 재해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어업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30%를 지원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